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타난 '위촉'의 표기(表記)에 대하여

저자
(Authors) 강헌규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99](#), 1988.6, 91-97 (7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99](#), 1988.6, 91-97 (7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2629>

APA Style 강헌규 (1988). 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타난 '위촉'의 표기(表記)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99, 91-9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2/01 10:3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三國遺事에 나타난 ‘獸鬪’의表記에 대하여

姜 憲 圭*

三國遺事 卷第三 “原宗興法 獸鬪滅身”條에는 ‘獸鬪’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에 ‘內養者’가 있으니 성은 차씨요, 이름은 ‘獸鬪’이었다. 혹은 異次, 혹은 伊處라 하니, 方音의 다름이다. 漢譯하여 獸라 한다. 鬪·鬪·鬪·道·觀·獨 등은 다 글쓰는 사람의 便宜을 따라 쓴 것이니 助辭다. 지금 鬪字는 漢譯하고 아랫字는 譯하지 아니하므로 獸鬪 또는 獸觀 등이라 한 것이다.

粵有內養者 姓朴字 獸鬪(或作異次, 或云伊處, 方音之別也. 譯云獸也. 鬪. 鬪. 道. 觀. 獨. 等 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今譯上不譯下. 故云獸鬪. 又獸觀等也.)

여기서 筆者가 밝히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① 이제까지 三國遺事의 번역서에서 ‘獸鬪’ ‘獸觀’을 ‘염축’ ‘염도’라고 읽는 것은 타당한가?

② ‘獸鬪’ ‘獸觀’에 나타난 ‘獸’의 의미는 무엇인가?

위의 인용문에서 주의할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1. ‘獸鬪’의 표기가 서로 다르다.

晚松文庫本에 의해 “原宗興法 에서 獸鬪滅身”과 “寶藏奉老 普德移

*공주사대, 국어학전공.

1) 覺訓의 海東高僧傳에는 “粵有內史舍人朴獸鬪”이라고 되어 있음으로 보아 內養者=內史舍人임을 알 수 있다.

‘內史舍人’이란 高麗 成宗 때의 중 4품의 관직이었으니 覺訓의 기록을 믿는다면 ‘內養者’란 ‘內史舍人’에 해당하는 新羅 官職名의 지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실제로 정신문화연구원에서 낸 三國遺事索引에는 이들을 ‘위축·위도’라고도 했고 ‘염축’이라고도 해 놓았다.

庵”에서 ‘獸觸’의 異表記를 뽑아 보면 다음과 같다. (숫자는 昨晟社 영인본의 三國遺事 面數임)

獸觸 : 다섯 곳(212, 213, 213, 217, 225)

獸觀 : 한 곳(213)

獸觸 : 한 곳(219)

이상에서 ‘獸’의 표기가 주로 ‘獸’은 그 字形에서 誤임을 알 수 있다.

2. 따라서 ‘獸觸’·‘獸觀’를 ‘염촉’·‘염도’라고 의심없이 읽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3. ‘獸’을 ‘염’으로 읽을 근거는 없다. 종래의 해석은 影‘獸’·‘獸’을 ‘厭’과 통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잇~(厭)’과 ‘異次·伊處’를 대비시켜 왔던 것이다. 즉 中世國語의 ‘잇~(困)’을 ‘厭’에서의 의미 변화로 본 것이다. 이같은 추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다. 중세어 ‘아천-숀-슬의-’를 뜻하는 厭과 ‘獸觸’의 ‘獸’를 같은 字로 보고, ‘獸’는 또 ‘獸’과 같은 자로 본다. 卽 다음의 등식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獸 = 獸 = 厭 = 아천-, 숀-슬의 → 의미 변화 困(잇-)

그러나 ‘獸’와 ‘厭’간에는 이같은 가능성이 있을 수 없다. ‘獸’를 옳은 표기로 보고 ‘獸’을 잘못 표기로 볼 때는 더욱 그렇다. 活字의 어려움으로 후대에 올수록 ‘獸’의 기록은 드물고 ‘厭’에서 ‘(민음호변)’을 떼어낸 ‘獸’으로 쓰다가 아예 ‘厭’으로 쓰고 있다.

4. 獸觸·獸觀·獸觸의 의미 및 原名에 대하여는 종래 ‘厭’의 古訓 ‘이치’에 의해 ‘善者’의 義의 ‘이치’·‘잇회’·‘인회’였을 것으로 보아 왔다. 또 佛敎의 思想에 의하여 ‘厭世’의 義로 ‘厭次·厭觸’(이치·잇회)이라 書하였다고 보아 왔다. 그러나 三國遺事 원문은 前述한 바와 같이 獸觸·獸觀의 獸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여섯 곳이고 厭(염)의 略字로 볼 수 있는 獸觸이 한 곳뿐이다.

이 한 곳마저도 加筆의 흔적이 보인다. 따라서, ‘獸觸·獸觀’는 ‘위촉·위도’로 읽어야 할 것이다.

5. ‘獸觸·獸覩’의 ‘獸’는 夾註의 대응으로 보아 ‘異次·伊處’임은 확실하나 이 뜻이 厭인가는 의문이다. 筆者는 ‘獸’를 ‘蝟’의 變體라고 한 李丙巖의說에 찬의를 표한다. 이병도는 獸를 蝟의 變體로 보고 ‘고슴도치’를 의미하는 글자³⁾라고 한다. 그리하여 신라시대에는 고슴도치를 ‘이즈드치’ 혹은 ‘이즈도치’라고 하였던 모양이라고 한다. 그러나 譯註 三國遺事 頭註에서는 조금 다르다.

獸는 蝟의 變體 「異次」「伊處」= 즉 「이즈」(現今語 고슴도치)의 漢譯이요, 觸은 「도치」의 音譯으로, 혹은 頓·道·觸 등으로도 쓴다는 것이다.

이상 斗溪의說에서 다음은 정곡을 얻은 것이라고 본다.

① 獸觸·獸覩의 獸를 蝟의 變體로 보고, 蝟는 蝟(고슴도치)로 본점.

② ‘異次’·‘伊處’는 ‘이즈’로 現今語 ‘고슴도치’라는 점.

그러나 獸觸·異次觸·異次頓·異次道·異次覩·異次獨·伊處觸·伊處頓·伊處道·伊處覩·伊處獨 모두를 ‘고슴도치’를 의미하는 신라어(이즈도치 혹은 이츠도치)를 포기한 것이라고 본 遺事 및 史記의 譯註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遺事의 分註에 나타난 或作·或云의 대상은 分註의 내용상 ‘獸’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獸=異次=伊處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蝟·蝟·獸·獸를 字典에서 찾아 본다.

蝟：似鼠毛歧而刺如栗房고슴도치[漢書]反者如一毛而起(未)彙通(崔南善, 新字典)

蝟：于貴切[集韻], 고슴도치위(刺鼠食瓜)(張三植, 漢韓大辭典)

獸：배부를 염, 심을 염, 편안할 염, 막힐 염, 壓·厭同(崔南善, 新字典)

獸：어떤 字典에도 보이지 않음.

그러나 獸는 蝟·蝟와 통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三國遺事에 나타난 獸의 정확한 字劃과 蝟·蝟의 通用 때문이다. 蝟·蝟의 음은 B·Karlgren에 의하면 uei(M) uai(C)j⁴(A) i(J)다. 이 음들은 [g-]로 시작되는 古音形에서 발달된 것이라고 한다. 뜻은 물론

3) 李丙巖,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82) p55.

고슴도치(hedgehog · Pocupine)다. 즉 (개사슴뚝뽀)과 犬이 같은 뜻이니 이것이 左에 있든 右에 있든 같은 字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蝟 = 獬 = 獸 = 고슴도치 = 異次 = 伊處 = ic^h ㄱ

따라서 다음과 같은 등식도 성립된다.

蝟 〰 蝟 〰 道 〰 觀 〰 獨

후자는 人名의 接尾辭일 것이다. 이 들을 합치면 다음과 같은 異表記들을 생각할 수 있다.

① 獸蝟 = 獸蝟 = 獸道 = 獸觀 = 獸獨

② 異次蝟 = 異次蝟 = 異次道 = 異次觀 = 異次獨

③ 伊處蝟 = 伊處蝟 = 伊處道 = 伊處觀 = 伊處獨

즉 이상의 여러 표기는 결국 釋讀 즉 譯上 ①) 音讀 즉 不譯下 ②) ·

③)의 차이뿐이지 모두 [이처도] · [이차도]의 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末子音을 가진 오늘날의 閉音節이 당시 末母音을 가졌을 것을 전제로 한다.

6. 蝟 = 蝟 = 獸의 通用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新羅語에서 ‘고슴도치’를 뜻하는 蝟 · 蝟 · 獸를 異次 · 伊處라 한 근거가 있는가가 문제다. 中世語에서 “刺蝟 · 蝟”를 뜻하는 말은 “고슴도치 · 고슴도티 · 고슴뚝 · 고슴돌 · 고슴뚝”만이 보인다. 인근 諸國語에서 찾아 본다.

harinezumi (日本 古代語)

sengge (만주 文語)

se)ə (만주口語)

ᠰaraga (몽고어)

ᠰarɔ(현대 몽고어)

kirpi(토이기어)

이들에서 예상한 [ic^h-]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몽고어 對 신라어에서 ᠰ : z : ts(ㅈ)의 대응 및 몽고어의 子音 앞에 [i]母音을 前提한다면 가능하다. 실제로 處道 : 伊處道の 대응표기라 할 異次蝟 或云 處道(三史 卷四 新羅本紀 第四 法興王)의 기록이 있다. 또 「伊伐倉 · 伊罰于 · 于伐倉」對「舒發翰 · 舒弗郡」, 「울긁불긁」[아깃자깃]「요모조

4) 李基文,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號, 1955.

모]의 V-對CV-形의 對立⁵⁾이 있다.

7. 鬪·頓·觀·道·獨은 音讀表記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의 끝에 붙는 이른바 접미사다. 音은 不譯下하여 [도]이었을 것이다.

8. 그러면 ‘이처도·이차도’의 뜻은 무엇일까? ‘妙·善·妍·好·美’를 뜻하는 ‘인~, 이대, 이든’이 바로 ‘이처’‘이차’였을 것이니 ‘이처도’‘이차도’는 梁柱東이 밝힌 대로 ‘善者’라는 보통명사였을 것이다.

9. 鬪·頓·道·觀·獨의 音讀은 ‘도’였을 것이다. 鬪의 근세음은 ‘투’·‘독’(최남선 新字典)이었으나 신라시대에 유기음이 없었다고 보면 ‘獨’과 같이 읽어야 할 것이다. 鬪·頓·道·觀·獨에 대하여는 漢書(卷九十四卷上 匈奴)에 나오는 單于의 太子 昌頓과 撐犁孤塗(天子的 뜻)를 참고할 일이다. 즉 太子를 뜻하는 昌頓과 子를 뜻하는 孤塗에 쓰인 頓·塗는 獸鬪의 표기에 쓰인 頓·道·觀·獨과 같은 것이다.

현대국어에도 그 흔적이 있다. 피돌이(少智謀者)·키다리(長身者)·人稱 및 일반 복수접미사 ‘-들’, 日語 hitori(1人) hutari(2人)의 tori·tari 등도 위의 頓·道·觀·獨과 같은 기원에서의 分岐로 보인다. tori·tari에 t>l·r의 音韻變化를 적용 tot·tat을 再構해 보면 더욱 그렇다.

10. 異次頓도 그 “祖는 阿珍宗郎으로, 즉 習寶葛文王의 아들”이니 王의 孫子임이 확실하다. 이로써 알타이語(匈奴語) 子·太子에 붙는 “(孤)塗”또는 “(昌)頓”이 異次頓에도 붙음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로써 鬪·頓·道·觀·獨은 알타이語에서 子·太子·혹은 貴少年을 지칭하는 인칭접미사임을 알 수 있다. 흉노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에 대하여는 申采浩도 일찌기 주목한 바 있다.

이상 ‘獸鬪’으로 代表되는 이 人名의 原義는 ‘착한 太子’·착한 아들 ‘착한 者’임을 알 수 있다. 獸鬪이 善者·善子の 의미임은 獸鬪의 人品과 家系를 말한 다음의 글에서도 알 수 있다.

(獸鬪은) 竹柏(과 같은)의 資質을 드러내고 水鏡(과 같은)의 뜻을 품었으며 積善한 分の 曾孫으로 宮內的 瓜牙의 物望이 있고, 聖朝의

5) 李崇寧, 「伊伐食·舒發翰」音韻考, 斗溪李丙森博士選歷記論, 1964.

忠臣으로 河清의 登侍를 바라던 터였다.(遺事 卷三 原宗興法 獸欄滅新)

끝맺는 말

1. 獸欄은 獸欄(염축)으로도 적히고 또 읽혀 왔으나, 獸欄으로 읽고 써야 할 것이다.
2. 獸欄으로 대표되는 이들의 釋讀音은 ‘이처도/이차도’ > ‘이츠도’ 다.
3. 獸欄의 原義는 善者·善子다.
4. 獸는 狷의 변체로 蝟(고슴도치)의 뜻이다. 따라서 蝟·狷를 뜻하는 신라어는 ‘異次’·‘伊處’였을 것이다.
5. 獸欄의 異表記로는 覺訓의 海東高僧傳에(AD1215, 高麗高宗2년) 獸欄과 함께 居次頓(異次頓)도 있으나⁶⁾, 獸欄은 遺事의 獸欄의 脫刻을 따른 것이요, 居次頓의 居는 ‘잇’의 釋讀字임이 확실하다.
6. 居次頓=異次頓에서 ‘居次=異次=ic^ho’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居의 현재 釋이 「살」임에서 「살」=「잇(혹은 잇)」을 추출할 수 있다. 여기서 「살아 있다」의 「있다」(有)의 原義가 居 혹은 生임과, 「살아 있다」가 同義語反復임도 짐작할 수 있다.
7. 居次頓=異次頓은 居漆夫(眞興王代人)의 「居」도 종래와 같이 「荒」에 맞추어 音讀할 것이 아니라 「잇」혹은 「잇」으로 읽어 「잇칠보」 또는 「잇출보」로 읽어야 할 것이다. 역시 「善者」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6) 海東高僧傳에는 法空에 대한 다음과 같은 記述이 있다. 至十六年 粵有內史
 舍人朴獸欄
 或云異次頓
 或云居次頓

참 고 문 헌

- 覺訓撰·李炳薰譯, 海東高僧傳, 乙酉文化社, 1975.
金富弼撰, 李丙巖譯註, 三國史記
李弘植, 國史大辭典, 世進出版社, 1981.
一然著, 李丙淵譯註, 三國遺事
南廣帖, 古語辭典, 一朝閣, 1971.
劉昌惇, 李朝語辭典, 延大出版部, 1979.
晚松文庫本 三國遺事 영인본 昨晨社, 1983.
新文豐出版公司 漢書補注, 中華民國六十四年版
梁柱東, 古歌研究, 一朝閣, 1970.
耘虛·龍夏, 佛教辭典, 東國叢經院, 1985.
李基文, 國語史概說, 塔出版社, 1978.
張三植, 漢韓大辭典
崔南善, 新字典
韓國精神文化研究院, 三國遺事索引
김선기, 가라말의 덩(韓國語의 語源)現代文學 통권 28호, 1978.
李基文, 語頭子音群의 生成 및 發達에 對하여, 震檀學報 17號, 1955
李崇寧, 「伊伐倉·舒發翰」音韻考, 斗溪李丙巖博士選曆記論, 1964.
崔鶴根, 韓國語의 北方由來(AItai語族)說의 可能性, 백산학보 제33호, 1986.